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파월 의장, “인플레 통제 외에 기후변화 이슈 손댈 생각 없다”

[에너지]

- WSJ: 오일과 가스 다시 회복되어 봄을 이룬다
- Bloomberg: 유가 상승 또다른 이유는 중국 수요 낙관 때문에

[부동산]

- Bloomberg: 미 모기지율 6.42%로 하락... 3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 CNBC: 주택 담보대출기관 1위 웰스파고, 주택시장에서 물러나

[공급망]

- Bloomberg: 가장 분주했던 서부 항만, 이제는 ‘썰렁’

[글로벌 경제]

- WSJ: 세계은행, 2023년 세계 성장 전망치 하향...인플레 지속 탓
- Bloomberg: 중국의 GDP가 5% 넘으려면 국내 소비가 핵심이다
- CNBC: Davos 2023 보고서, “인플레 위기가 세계 경제의 최대 단기 위협” 경고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달러지수, 데드크로스 직면...2020년 7월 이후 처음
- 연합뉴스: UBS "연준, 이르면 7월부터 피벗...근원 PCE 2.1%까지 둔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한화그룹, 미국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에 25억 달러 투자
- TechCrunch: 삼성, 오는 2월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 개최...2억 화소 카메라 탑재
- Bloomberg: 애플, 2024년부터 삼성 떠난다...자체 디스플레이 제작
- Cnet: AI 인공 지능 ChatGPT, 금년에 도처에서 인기 예상돼

[보고서]

- HBR 보고서: 자신의 업무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Powell Says Fed Will Not Become a ‘Climate Policy Maker’

파월 의장, “인플레 통제 외에 기후변화 이슈 손댈 생각 없다”

- 일부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최근에 연준을 향하여 금리 정책 외에 기후 변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출기관들 감독 역할을 하도록 연준에 압력을 가해 왔다.

- 그러나 파월 의장은 선출된 정치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플레이를 통제하는 정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 통제 정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파월 의장은 현재 스웨덴에서 다른 국가들 중앙은행 책임자들과의 패널 토의에서 어제 화요일 이같이 밝혔다.

WSJ 기사

[에너지]

WSJ: Oil and Gas Are Back and Booming 오일과 가스 다시 회복되어 붐을 이룬다

- 러시아 침공과 미국 경제의 회복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화석 연료가 놀랄만한 회복력(surprising resilience)을 보인다. 바이든이 클린 에너지를 주창하고 화석연료 산업의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미국의 천연 가스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국가의 원유 생산량은 2019년 수준을 거의 따라 가고 있다. 가스와 원유 수출 모두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항공기, 의약품, 식품 및 자동차의 해외 판매를 쉽게 앞지르고 있다. Exxon Mobil 의 주가는 작년에 80% 상승했다.
- 그동안 미국 오일과 천연가스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었는데 놀라운 글로벌 수요 때문이었다. 수익이 많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기간에 이들 기업의 '폭리'를 비난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Rises as China Demand Optimism Counters US Stockpiles

유가 상승 또다른 이유는 중국 수요 낙관 때문에

- 유가는 중국의 수요 전망에 낙관적인 분위기로 상승했다. 중국 수요 전망은 미국 원유 비축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텍사스 중질유는 예전 손실을 회복하고 2.7% 올랐다.
- 중국 기업들은 1월말로 다가오는 음력설 전에 미국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이번주 초에 중국 정부는 또한 대규모 수입 쿼터량을 발표해 원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 한편 미 석유협회(API)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1천4백90배럴 증가했다고 밝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Bloomberg: US Mortgage Rates Decline to 6.42%, First Drop in Three Weeks****미 모기지율 6.42%로 하락... 3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 이로 인해 채용자 건수가 다소 상승할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계약하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난 1월 6일 끝나는 주에 6.42%로 가라앉았다고 Mortgage Bankers Association(MBA)은 오늘 수요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주에 채용자 신청건수는 5.1% 상승했다.
- 물론 채용자 지수의 상승해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20년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모기자 금리가 작년엔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 MBA의 주택구매지수는 지난주 0.5% 하락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CNBC: Wells Fargo, once the No. 1 player in mortgages, is stepping back from the housing market**주택 담보대출기관 1위 웰스파고, 주택시장에서 물러나**

- 이 은행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모기지 담보 용자를 제공하려는 비즈니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은행과 자산 관리 고객과 소수 커뮤니티의 차용인을 위한 주택 용자에 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웰스 파고는 대신에 제3자 대출기관이 만든 용자 구입을 폐쇄하고, 자산 판매를 통한 모기지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모기지 부분의 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공급망]**Bloomberg: How the Busiest US Port Went From Swamped to 'Dormant Volcano'****가장 분주했던 서부 항만, 이제는 '썰렁'**

- 작년 이맘때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만 앞바다에는 1백9척의 선박이 뒹뒹떠서 도착을 기다려야 했다. LA 항만 관계자는 그당시 교통량은 10차선을 5차선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뻘뻘한 상태였다고 비유했다.
- 그러나 현재는 조용한 ‘휴화산’ 같은 상황이다. 이유는 전염병 회복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둔화, 수요가 상품에서 여행 등 서비스로의 변동 때문이다.
- 노동력 공급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팬데믹 한창때는 항구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노동자들이 해운회사와 계약 협상에 간혀있다보니 수입품을 서부 항만에서 걸프만과 동부 항만으로 옮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orld Bank Cuts 2023 Global Growth Projection as Inflation Persists

세계은행, 2023년 세계 성장 전망치 하향...인플레이션 지속 탓

-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성장이 둔화됐다”고 밝히며 2023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 예상한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09년과 2020년에 이어 30년만에 세 번째로 느린 세계 성장 속도이다.
-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전염병 관련 혼란, 부동산 침체 등을 세계 성장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 세계은행은 2023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0.5% 증가, 중국은 4.3% 증가하고, 유로존의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흥 개발도상국은 3.4%의 GDP 성장을 예상했다.
- 한편 JP모건 CEO Jamie Dimon 은 2023년 초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5.5%~6%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세계은행 보고서 원문

Bloomberg: China's Consumers Are the Key to Lifting 2023 Growth Above 5%

중국의 GDP가 5% 넘으려면 국내 소비가 핵심이다

- 중국은 지난해 홍콩과 대만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수개월 안에 감염수가 최고조로 달할 것이다. 그 이후 경제는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것. 문제는

반등 속도다.

-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은 4.9%.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이들이 공식 목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수치 4.5%~5.5% 범위에 속한다.
- 성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소비자 지출이 6%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
- 물론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중국 가구가 여행이나 비싼 제품 지출을 자제했고 작년에 막대하게 저축했다는 것이다. 작년초부터 9개월간 1조9천억 달러를 저축해 한국의 연간 총생산량보다 많았다는 것.
- 그러나 저축 증가는 주로 부유층에서였다. 그리고 부유층은 저축액을 상품이나 서비스 지출보다는 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소비자 지출이 약한데다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중국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에 시달려 올해 중국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 진작 차원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필요한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팬데믹 이전 비율의 두 배인 거의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Bloomberg 기사

CNBC: Inflation crisis poses greatest near-term global threat, Davos survey warns

Davos 2023 보고서, “인플레 위기가 세계 경제의 최대 단기 위험” 경고

- 1월 16일 스웨덴 Davos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를 앞두고 발표된 연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최대 단기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위기를, 장기 위험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 지난 17년간 WEF를 앞두고 발간된 이 보고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걸쳐 1200명의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위험 요소로는 자연재해, 지정학적 대립, 사회 결속력 약화, 사이버 범죄,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등이 꼽혔다.
- 보고서는 “생태 붕괴(ecological breakdown)”와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 세계가 향후 10년간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와 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WEF 보고서 원문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달러지수, 데드크로스 직면...2020년 7월 이후 처음
- 연합: UBS "연준, 이르면 7월부터 피벗...근원 PCE 2.1%까지 둔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U.S. Solar Manufacturing to Get \$2.5 Billion Investment From South Korean Conglomerate

한화그룹, 미국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에 25억 달러 투자

- 한화그룹 Qcell이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 시설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애틀랜타 지역에 연간 3.3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생산 시설을 짓고, 2022년 미국 수요 추정치의 약 18%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반년 전 미국에서 배터리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세금 공제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서명된 후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 한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고, 세금 공제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업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TechCrunch: Samsung is holding its next Galaxy Unpacked event on February 1, teases camera improvements

삼성, 오는 2월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 개최...2억 화소 카메라 탑재

- 삼성이 오는 2월 1일 신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서 새 S23시리즈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의 티저 발표에 따르면 새 S23 시리즈가 지난 10월 개발된 삼성의 자체 2억 화소 카메라와 퀄컴의 최신 Snapdragon 8 Gen 2 프로세서 등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편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 주 8년만에 사상 최저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TechCrunch 기사

Bloomberg: Apple to Begin Making In-House Screens in 2024 in Shift Away From Samsung

애플, 2024년부터 삼성 떠난다...자체 디스플레이 제작

- 애플이 삼성, LG와 같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많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작은 애플워치부터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현재의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LED로 전환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아이폰을 포함한 다른 기기들에 탑재할 예정. 따라서 삼성과 LG 등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애플이 2014년부터 시작한 자체 디스플레이 생산 목표는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애플은 결국 새로운 자체 디스플레이를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고안했지만, 대량 생산은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et: ChatGPT Will Be Everywhere in 2023 **AI 인공지능 ChatGPT, 금년에 도처에서 인기 예상돼**

- AI 인공지능 ChatGPT은 지난해 11월 데뷔 이후 투자자, 거대한 기술 기업 및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기능도 주목할만하다.
- 사람들이 고객 서비스 챗봇, Alexa 또는 Siri와 같은 음성 지원 가상 비서, 검색 엔진 및 이메일 받은 편지함과 상호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측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안에 챗봇과 음성 비서의 대화 기능이 크게 향상된 기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et 기사

[보고서]

HBR 보고서: Don't Underestimate Your Influence at Work **자신의 업무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며, 주관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한다.
- 이렇듯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를 주도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대의를 지지해야 할 때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또는 의도치 않은 때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더 잘 인식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이 있다. : 타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보고, 느끼

고, 경험하라.

1.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파악하라

-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중립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가졌던 직장에서의 두드러진 상호 반응이나 만남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느껴라

-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경험하라

-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수용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기꺼이 동의하는지, 누군가에게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론

- 자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다. 직접 묻고, 요청하고, 감사를 표할 때 자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번역: 백승아)

HBR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이사 "추가 금리인상 필요"... JP모건 CEO "금리 6%도 가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6%에 이를 수 있다는 월가 거물의 전망도 나왔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진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먼 이사는 이날 플로리다 은행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최근 몇 달간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갔지만 우리는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밝혔듯이 FOMC에서 통화긴축 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